

학위수여식 학생 대표 연설문

졸업생 대표
신 선 호

우리 서울대학교의 제 6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400여 명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과 더불어 군 복무와 교환학생 파견 및 인턴생활을 하는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슬한 웃음과 눈물로 아로새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치열한 고민의 순간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방향상실의 매 순간마다 학교는 저에게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그리고 또 때로는 정어린 위안과 격려를 허락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저에게는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많은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후배 학우들은 이를 ‘샤부심’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샤부심’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제가 독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파독 간호사 출신의 교포 아주머니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한국 음식을 차려 주시면서 “신 군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잖아. 나 같은 교포들은 비록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서울대생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학생 아닌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빛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요. 그래야 우리도 웃고 살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 한 마디가 독일에서의 인턴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학생, 이 짧지만 굵직한 단어 하나만큼 관악의 인재들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전당인 관악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동시대의 뛰어난 인재들을 벗 삼아 공부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 서울대학교를 향한 사회의 비판이 그 여느 때 못지않은 요즘이지만, 사실은 이 역시 우리를 향한 크나큰 관심과 무한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한없이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바로 이 순간, 저는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샤부심’의 의미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꿈꿔오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혹은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앞두고도 마음은 무겁기만 한 학우님들 역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했던 매우 아픈 말 한 마디가 새삼 떠오릅니다. “서울대 졸업장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훌륭한 날개가 되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없이 무거운 족쇄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서울대 졸업생에게 어울리는 자리’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 졸업생에게 기대되는 열정과 신념과 노력만이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껏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칭찬과 앞으로 기울일 더욱 큰 노력에 대한 격려의 이름으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받게 되는 졸업장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 관악에서 쏟은 노력의 결실임과 동시에 사회의 기대와 국가의 미래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을 겹쳐히 짊어지겠다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요즘 ‘강남 스타일’ 이라는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욱 높은 곳을 향한 힘찬 비상을 끊임없이 꿈꾸면서도 낮은 곳을 향해 뜨거운 손을 내미는 일 역시 잊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악 스타일’ 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곳 관악에서 지금껏 배워왔듯이 술한 고난과 역경조차도 배움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서울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29

졸업생 대표 신 선 호